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간략한 역사와 교리 및 실행)

문영권

머리말

Brethren, Christian Brethren, Plymouth Brethren, 한국에서는 “형제교회”(지방교회, 구원파와는 전혀 다름) 등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복음적인 독립교회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자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20세기 미국의 근본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세대주의를 현대적 형태로 체계화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고,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에게도 교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전도의 열정과 경건한 삶으로 인해 설사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동시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rethren이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는 무천년주의와 언약신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학계의 분위기로 인해, 그리고 Brethren들이 성직자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교파명을 취하고 있지 않는 등 기존의 일반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Brethren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 심한 경우 이단이라는 오해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기독교가 여러 가지 교파로 분열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성경의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에 특정한 교파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로 모두다 하나님의 제사장(즉, 성직자)이라는 “만인제사장”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카톨릭에서 그러하듯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아래의 글 1부에서는 복음주의 학자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브루스(F. F. Bruce) 박사가 자신이 속해 있던 Brethren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을 옮겨 실었고, 여러 기독교 저술과 문헌, 인터넷사이트 등에 다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Brethren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Brethren의 역사와 교리, 실행적인 측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Brethren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로 하여금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들이 가진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해 혹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푸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자신들을 부를 때 교파명을 붙인 분파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형제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로만 불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Brethren, 형제교회 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편의상 이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혀 둡니다.)

제1부 Brethren은 누구인가?

I. 브루스 박사의 글

아래의 글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F. F. 브루스 박사가 자신이 속해 있던 Open Brethren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1960년대에 작성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Open Brethren 가운데서도 친교의 범위에 있어 좀더 개방적인 형제들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가 작성한 아래의 소개글을 살펴보면 Brethren에 대해 개략적이고 균형잡힌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Brethren은 누구인가?

by F.F. Bruce

1. 도입

The **Brethren**, or '**Christian Brethren**', take this name because they prefer to be known by a designation comprehensive enough to embrace all their fellow-Christians. There are two main groupings among them, commonly described as '**Open Brethren**' and '**Exclusive Brethren**'. The terms 'Open' and 'Exclusive' are intended to denote their respective principles of communion. These pages are concerned only with the people called 'Open Brethren'; the writer has no authority to write about his 'Exclusive' friends.

Brethren(형제교회) 또는 **Christian Brethren**으로 불리고 있는 이들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교회는 크게 보아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흔히 '**Open Brethren**'으로 알려진 그룹이고 또 하나는 '**Exclusive Brethren**'으로 알려진 그룹입니다. 'Open' 또는 'Exclusive'라는 용어는 친교의 원리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차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본 저자가 현재 속해 있는 'Open Brethren'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Exclusive Brethren'에 대한 글을 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It may be useful to make one point in this connection, however. During the last year or two considerable publicity has been given in British newspapers to the withdrawal of a number of people called Brethren from various busines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from Universities. These people belong to one party only of Exclusive Brethren, and their policy in such matters is not shared by other Exclusive Brethren, and still less by Open Brethren. This distinction has not always been clearly observed, and the result has been considerable confusion in the public mind.

하지만 여기서 'Exclusive Brethren'에 관한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최근 1,2년간 영국의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형제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체나 전문직 연합회, 그리고 대학교 등을 그만두고 있다고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Exclusive Brethren의 한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저자가 이 글을 기록한 1960년대 초에 영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이 분파는 '테일러 분파'라고 불리는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무리들로서, 이들은 다른 모든 Brethren과의 교제를 끊고 고립의 길을 걸어난 극소수의 무리들이었음 역자주), 이러한 점에 있어 그들이 취한 방향은 다른 Exclusive Brethren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Open Brethren에서는 더더욱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다른 Brethren과 다른 길을 걸어난 이러한 극소수의 분파가 행한 일은 Brethren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전체 Brethren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The Open Brethren have no central organization. They belong to a large number of local churches or assemblies, spread throughout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ntinent and many other regions. Each of their local churches is independent so far as administration goes; there is no federation or union linking them together. Yet there is a recognizable family likeness between them, and their sense of a spiritual bond is strong.

Open Brethren은 Exclusive Brethren과 달리 중앙 통제조직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영연방에 속한 여러 국가들과 미국, 유럽 대륙, 그리고 기타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으며, 각 지역마다 많은 수의 교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지역교회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합체나 연결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회 사이에는 가족처럼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강력한 영적 결속력이 존재합니다.

2. 기원

The Brethren movement originated around the year 1825, although the Brethren commonly insist that their roots are really in the apostolic age, for they aim as far as possible at maintaining the simple and flexible church order of New Testament times. In the earlier part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barriers separating the various Christian denominations were less easily surmounted or penetrated than they are today. The founders of the Brethren movement were a group of young men, mostly associated with Trinity College, Dublin, who tried to find a way in which they could come together for worship and communion simply as fellow-Christians, disregarding denominational barriers. They had no idea that they were starting a movement; still less had they any thought of founding a new denomination, for that would have defeated the very purpose for which they came together. For a time some of them continued to be members of their original churches, in which indeed a few of them were ordained ministers; but in general this situation did not remain practicable for long.

형제교회 운동의 기원은 18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형제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단순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초, 여러 분열된 기독교 교단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운동의 개척자들은 일단의 청년들로서, 대부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파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순한 자격으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은 모임이 장차 큰 운동으로 발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같은 시도가 말로 그들이 함께 모이는 순수한 목적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임을 시작한 초기 얼마 동안 그들중 일부는 전에 소속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소수는 원래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볼 때 이러한 일(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으로만 함께 모여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동시에 전에 속해 있던 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말함-역자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One of their early leaders was a Church of Ireland clergyman named **John Nelson Darby** (1800-1882), a man of unusual strength of intellect and personality, who envisaged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worldwide witness to the unity of the Church of Christ in an age of ecclesiastical fragmentation. His views were perpetuated by the Exclusive Brethren rather than by the Open group; when the cleavage between the two took place in 1848 it was to those who sided with Darby that the name Exclusive Brethren was given.

이 형제교회 운동의 초기 인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넬슨 다비**(1800-1882)로 불리는 아일랜드 교회 신부였습니다. 그는 비상한 지적 능력과 성품의 소유자로서, 각 교단들이 분열에 빠져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광범위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다비의 견해는 Open Brethren보다는 Exclusive Brethren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1848년에 이 두 그룹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다비의 가르침을 따랐던 무리에게 'Exclusive Brethren'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From Dublin the movement spread to England. In England the first Brethren assembly was established at Plymouth in 1831; hence arose the popular term '**Plymouth Brethren**'. Two leaders of the Brethren's meeting at Plymouth, **Samuel Prideaux Tregelles** (1813-1875) and, in a lesser degree, his relative, **Benjamin Wills Newton** (1807-1899), were responsible for one of the best critical editions of the Greek New Testament to appear in England in the nineteenth century.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시작된 형제들의 운동은 잉글랜드로 확장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첫번째 형제 교회는 1831년 플리머스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명을 따서 ‘**Plymouth Brethren**’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플리머스에 세워진 형제교회의 두 지도자는 **사무엘 트레겔레스** (Samuel P. Tregelles, 1813-1875)와 그의 친척이 되는 **벤자민 뉴턴** (Benjamin W. Newton, 1807-1899)이었습니다. 그들은 19세기 당시 영국에서 출간된 헬라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본 가운데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Another important meeting of Brethren was Bethesda Chapel, Bristol, which had as its Joint-pastors the Scottish Hebraist **Henry Craik** (1805-1866) and the German-born **George Muller** (1805-1898), best known for the great orphanage which he established in that city in 1836 and which survives to the present day. **Dr T.J. Barnado** was also a member of the Brethren when he founded his equally famous orphanage in London in 1870.

또 다른 중요한 형제교회는 브리스톨에 위치한 Bethesda Chapel로서 스코틀랜드계 유대인인 **헨리 크레이크**(Henry Craik, 1805-1866)과 독일계 **조지 뮐러**(George Muller, 1805-1898)가 공동으로 사역한 곳입니다. 특히 조지 뮐러는 브리스톨에 1836년에 고아원을 세운 인물로서 이 고아원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바네이도 박사**(Dr. T. J. Barnado)도 형제교회의 일원으로서 1870년에 런던에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가 세운 고아원도 조지 뮐러가 세운 고아원처럼 동일하게 유명해졌습니다.

3. 해외 선교

George Muller's brother-in-law, **Anthony Norris Groves** (1795-1853), has claims to be regarded as the first of the Brethren. He gave up a dental practice in Exeter to become a pioneer missionary, first in Baghdad and then in India. He was a man of large-hearted sympathies, who never forgot that the things which unite Christians are immeasurably more important than the things which divide them. 'I would infinitely rather bear with all their evil', he said of some people with whom he seriously disagreed, 'than separate from their good.' Whether those features which he thought to be evil were so in fact or not, his words express the attitude which Open Brethren acknowledge as their ideal.

조지 뮐러의 매제인 **안토니 그로브스**(Anthony Norris Groves, 1795-1853)는 형제교회의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엑시터에서 운영하던 치과병원을 그만두고 개척 선교사가 되어 먼저는 바그다드로 나갔고, 후에 다시 인도에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심각하게 의견이 달랐던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의 선함과 분리되느니 차라리 그들의 모든 악함을 무한히 참아내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사실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그가 한 말은 Open Brethren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

The Brethren missionary movement launched by Groves continues to the present time in every continent, and over a thousand missionaries are engaged in it. Some Brethren missionaries have been pioneers in more senses than one. Among these were two Scots, **Frederick Stanley Arnot** (1858-1914) and **Dan Crawford** (1870-1926), who explored uncharted areas of Central Africa, it was Arnot who first opened up Katanga to the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in the 1880s. Brethren missionaries are located principally in Central Africa, India and Latin America; they co-operate with other missionary bodies in the practice of mission comity. Their work is registered under the designation '**Christian Missions in Many Lands**'.

그로브스로부터 시작된 형제교회의 선교운동은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형제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1,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여러 의미에서 볼 때 개척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개척자로서 선교사역을 수행한 형제들 가운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레드릭 아르노트**(Frederick Stanley Arnot, 1858-1914)과 **단 크로포드**(Dan Crawford, 1870-1926)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1880년대에 카탕가 지역을 외부세계에 알게 한 사람은 바로 아르노트였습니다. 형제교회 선교사들은 주로 중앙 아프리카와 인도, 남미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현장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원단체인 **CMML(Christian Missions in Many Lands)**에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교리

So far as their doctrines are concerned, Open Brethren have no peculiarities. They hold the historic Christian faith, because they find it plainly taught in the Bible, which is to them, as to children.. of the Reformation,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They are wholeheartedly evangelical in their understanding and presentation of Christianity, proclaiming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the all-sufficient Saviour of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Him and as the only hope for mankind. For this reason many of them find it specially easy to co-operate in Christian witness with others who share this evangelical emphasis, and in many inter-denominational evangelical causes their influence is greater than their numbers might lead one to expect. For example, they have played a full and active part in all the crusades which **Dr. Billy Graham** has conducted in the British Isles.

교리에 관한 한 Open Brethren은 유별난 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믿음과 실천의 기반이 되는 절대무오한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복음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자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복음전파의 열망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은 이러한 복음적 진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초교파적 복음주의 단체에 대해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사람들이 형제들의 수를 보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큼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영국에서 전도사역을 할 때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과 합류해서 일했습니다.

The beginnings of the Brethren movement were attended by a keen interest in the fulfillment of Biblical prophecy, and many of them are still characterized by this eschatological awareness. Their hymnody gives quite a prominent place to the Second Advent of Christ. But no single line of prophetic interpretation is held or imposed by them. Indeed, one of the features which many people find attractive about their fellowship is the spiritual and intellectual liberty which is enjoyed there in an atmosphere of brotherly love.

성경의 예언 성취는 형제교회 운동의 시초부터 형제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형제들이 종말론에 바탕을 두고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찬송가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비중 있게 다룬 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해석에 있어 한 가지 해석체계만이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교회들에서 발견하는 매력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형제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 누리는 영적이고 지적인 자유함이라고 말합니다.

5. 실행

It is practice rather than doctrine that marks them out. Among Open Brethren baptism is administered only to people who make a personal confession of faith in Christ, whether they are adults or children; and the mode of baptism is immersion. They observe the Lord's Supper every Sunday morning (and occasionally at other times), and hold that the Lord's Table is for all the Lord's people. This, in fact, is their most distinctive gathering. When they meet for communion, together with any Christians who care to join them for this occasion, their devotions are conducted by no presiding minister and follow no prearranged sequence, but are marked nevertheless by a reverent spontaneity and orderliness. Various brethren contribute to the worship by suggesting hymns to be sung, by leading the congregation in prayer and thanks giving, or by reading and expounding a passage from the Bible.

형제교회를 특징짓는 것은 교리적인 요인보다는 실행적인 요인이 큼니다. Open Brethren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에 한해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침례의 방법은 물에 담그는 침수(浸水)입니다. 그들은 매주일 아침마다 주의 만찬을 준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같이 매주일 드리는 만찬이야말로 형제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 원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눌 때, 그들은 이러한 만찬을 집행하는 목사 없이 만찬을 나누며 미리 절차를 정해놓고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질서에 따른 참여로 인해 만찬시간은 경건하게 실

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형제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함께 어떤 찬송을 부르자고 제안하거나 기도와 감사를 통해 회중을 인도하기도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The Brethren have no ordained ministry set apart for functions which others cannot discharge. A considerable number do give their whole time to evangelism and Bible teaching, but are not regarded as being in clerical orders. The various local churches are administered by responsible brethren called elders or overseers, but these have no jurisdiction outside their own local churches, and inside them they try to guide by example rather than rule by decree.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목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전심사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직자 계급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장로들(감독들)로 불리는 책임 있는 형제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는 않으며, 그들은 법령에 의한 통제보다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성도들을 인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The Brethren have always manifested a supreme lack of interest in their numerical strength. Their numbers are difficult to assess, partly because no precise statistics are available and partly because there is no hard-and-fast line of demarcation between Brethren assemblies and other independent evangelical churches. A common estimate of their strength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is 100,000; but this is at best approximate. They are to be found in all grades of society and in all walks of life.

형제들은 언제나 많은 수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도 하고, 또 형제교회들과 기타의 복음적 독립교회들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기도 한 이유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는 100,000명 정도의 형제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숫자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각계 각층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자 소개

복음주의 신학자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프레드릭 브루스(Federick Fyvie Bruce, 1910-1990)는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분야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가 저술한 "New Testament Documents : Are they Reliable?(신약성경사본, 믿을 수 있는가?)"는 기독교 변증론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저작입니다. 특히 그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이 분야에 대해 쓴 저

술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Paul :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바울, 해방된 마음을 가진 사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히브리서 등에 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1910년 스코틀랜드에 있는 엘진(Elgin)에서 **형제교회**에서 전심사역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애버딘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비엔나 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몇 년간 헬라어를 가르친 후에 1947년에 셰필드 대학교에서 성경사와 성경문학 분야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맨체스터 대학교로 옮겨 성경비평과 주석분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33권의 책을 저술했고 The Evangelical Quarterly라는 잡지와 The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라는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78년에는 교수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 학술원의 특별회원(fellow)으로 추대받았고, 구약연구협회(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와 신약연구협회(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 사망할 때까지 Open Brethren에 속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한국에는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들’(총신대학출판부), ‘사해사본’(총신대학출판부), ‘때가 차매’(두란노), ‘바울 결의 사람들’(기독지혜사), ‘사도행전’(성서유니온), ‘바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바울과 예수’(아가페출판사), ‘예수의 난해한 말씀들’(요단출판사), ‘예수와 기독교 기원’(컨콜디아사), ‘바울 신학’(기독교문서선교회), ‘초대교회 역사’(기독교문서선교회), ‘신약사’(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사’(기독교문서선교회), ‘예수님의 수제자들’(기독교문서선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과거 현재 미래’(생명의말씀사), ‘신약성경문헌연구’(생명의말씀사), ‘신약의 메시지’(생명의말씀사), ‘신약에 나타난 복음의 변증’(생명의말씀사),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두레마울) 등이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주석으로는 ‘데살로니가전후서’(솔로몬), ‘요한복음’(로고스), ‘사도행전’(기독교문서선교회), ‘틴델신약주석시리즈-로마서’(기독교문서선교회), ‘히브리서’(생명의말씀사)와 ‘뉴 인터내셔널 성경주석시리즈-갈라디아서,골로새서’(생명의말씀사) 등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II. 기타 기독교 문헌에서 Brethren을 언급한 사례

1. ‘NIV 영어성경’ 서문 중 일부 - NIV 번역 참여교단 소개

영어성경 NIV의 서문 가운데 번역에 참여한 교단을 열거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교단과 함께 Brethren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제교

회의 형제들은 자신들에 대해 형제교회, Brethren 등과 같은 교파 명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고 다만 형제들, 그리스도인들로만 불리기를 원합니다.

The fact that participants from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worked together gave the project its international scope. That they were from many denominations – including Anglican, Assemblies of God, Baptist, **Brethren**,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Christ, Evangelical Free, Lutheran, Mennonite, Methodist, Nazarene, Presbyterian, Wesleyan and other churches – helped to safeguard the translation from sectarian bias.

전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번역자들이 이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보면,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회, **형제교회**, 기독교개혁교회, 그리스도 교회, 자유 복음교회, 루터교회, 메노교회, 감리교회, 나사렛교회, 장로교회, 웨슬리파, 기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번역이 교파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 패커의 언급

복음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패커(James I. Packer)는 원래 Plymouth Brethren에 의해 창설되었던 신학교인 Regent College(캐나다 밴쿠버 소재)에서 교수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는 19세기에 Brethren이 체계화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 언약신학자이긴 하지만, “**성령을 아는 지식**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홍성사 발행)”이라는 책에서 주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모든 지체가 지역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재발굴한 공로를 아래와 같이 Brethren에 돌리고 있습니다(38-39페이지에서 인용).

“그 결과 모든 지체가 마땅히 사역에 참여해야 할 곳인 교회에서 ‘성직자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중략) 원칙적으로 보면 불명예스럽고 실제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생각이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19세기 중반부터 계속해서 은사의 보편성과 전 교인 사역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3. 기독교사적 본문에 나타난 언급(위버-제르허와 윌리엄 윌리먼)

미국 펜실베이니아 그랜덤에 소재한 메시아 대학(Messiah College)의 미국 종교사 분야의 교수인 데이빗 위버-제르허(David Weaver-Zercher)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감독이자 듀크 대학의 기독교 사역 분야의 교수인 윌리엄 윌리먼(William H. Willimon)이 공동집필한 ‘**Vital Christianity**’(T&T Clark 발행)의 26페이지를 보면, 20세기 미국의 신학발전 역사를 볼 때 Brethren

이 20세기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의 근간을 형성한 세대주의를 현대적으로 체계화시켰을 뿐 아니라, 무디와 피어슨, 최근의 빌리 그래함 같은 미국의 대표적 복음전도자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A brief look at some twentieth-century theological developments confirms the lingering effects of theological dualism in North American evangelical theology. These years, historians tell us, exhibited a strong and sustained conservative reaction to the threat of rational empiricism, often referred to as liberalism. While many conservative theologians participated in this battle, few were as widely read or as influential as Lewis Sperry Chafer, who founded Dallas Theological Seminary in 1924 and taught there until his death in 1952. Chafer is perhaps best known for organizing the work of the **Plymouth Brethren** and C. I. Scofield into an eight-volume theological work.⁷ But in addition to his systematic theology, Chafer published numerous other books, one of which—*He That Is Spiritual* (1918)—is particularly relevant for our purposes, for it quickly became a definitive text for conservative dispensationalists, who dominated America's fundamentalist movement for most of the twentieth century.

Dispensationalism itself was not Chafer's invention, but rather had its origins in Great Britain's Darbyite (**Plymouth Brethren**) movement. An eschatological scheme that divided Christian history into seven distinct eras (dispensations), dispensationalism significantly impacted theology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teaching of the **Plymouth Brethren** following the Civil War.⁸ Men such as D. L. Moody and A. T. Pierson, who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promotion of Protestant mission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Brethren**. More recently, Billy Graham has commented appreciatively that evangelicals have all milked the **Plymouth Brethren** cow.

20세기의 신학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북미의 복음주의 신학에 신학적 이원론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보통 자유주의로 알려져 있는 합리적 경험주의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보수적 반응이 있었다. 많은 보수적 신학자들이 이러한 전투에 참여했지만 1924년에 달라스 신학교를 세우고 1952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계속 가르쳤던 루이스 스페리 웨이퍼(Lewis Sperry Chafer)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웨이퍼는 **Brethren**과 스코필드(C. I. Scofield)의 저작들을 8권짜리 조직신학 저서로 체계화시킨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조직신학 저서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영적인 사람(He That Is Spiritual)"이라는 책이 이 글의 목적과 관련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보수적인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 가장 권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이 보수적 세대주의는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을 지배했다.

세대주의 자체는 웨이퍼가 최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영국에서 일어난 Brethren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한 종말론적 체계를 가진 세대주의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Brethren의 가르침을 통해 미국의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개신교 선교의 확장에 큰 역할을 했던 무디(D. L. Moody)와 피어슨(a. T. Pierson)은 Brethren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Brethren의 공헌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모두 Brethren이라는 소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 자랐다고 말했다.

4. 근본주의에 미친 다비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책

아래에 인용한 글은 Plymouth Brethren의 대표적 지도자이자 세대주의의 현대적 체계화를 이룩한 존 넬슨 다비의 사상이 20세기 전반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성경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미국의 근본주의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출처 : Ernest R. Sandeen, *The Roots of Fundamen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p. xix.)

Much of the thought and attitudes of those who are known as Fundamentalists can be mirrored in the teachings of this man[Darby].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많은 부분은 이 사람(다비)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매킨토시와 관련된 무디의 언급

아래의 글은 Plymouth Brethren의 초기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자,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모세오경강해’의 저자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 매킨토시의 저작들에 대해 무디가 보인 높은 평가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출처 : Ernest Sandeen, *The Roots of Fundamen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p.166)

I had my attention called to C. H. M.'s notes, and was pleased and at the same time profited the way they opened up Scripture truth, that I secured at once all the writings of the same author, and if they could not be replaced, [I] would rather part with my entire library, excepting my Bible, than with these writings. They have been to me a very key to the Scriptures.

나는 매킨토시의 주석들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럴 때면 그 주석들이 성경의 진리를 펼쳐 보이는 방법으로 인해 기쁨과 유익을 얻은 나머지, 나는 매킨토

시의 모든 저술들을 한꺼번에 확보했다. 그리고 만약 매킨토시의 저술들로 기존의 내 도서관 책들을 대체할 수 없다면 그 책들과 헤어지느니 차라리 성경을 제외하고 내 도서관의 모든 책들과 헤어지겠다.

6. 형제들에 대한 조지 엘던 래드의 언급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신학자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조지 엘던 래드 (George Eldon Ladd)는 언약적 전천년주의자였지만 세대주의를 체계화시킨 형제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열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출처 :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p.49)

It is doubtful if there has been any other circle of men who have done more by their influence in preaching, teaching, and writing to promote a love for Bible study, hunger for the deeper Christian life, a passion for evangelism, and a zeal for missions in the history of American Christianity."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 성경연구에 대한 열정을 촉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더 깊은 생활에 배고파하며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기 위해 설교와 가르침, 저술활동에 끼친 영향에 있어 Brethren들이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

○ 허드슨 테일러와 관련된 언급

중국내지선교회의 창설자이자 오직 기도로만 선교의 필요를 공급받은 ‘믿음 선교’의 살아있는 사례를 남긴 허드슨 테일러가 Brethren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출처: <http://encyclopedia.stateuniversity.com/pages/17604/Plymouth-Brethren.html>)

Hudson Taylor, the founder of the China Inland Mission, kept strong ties with the Open Brethren, even though he was raised a Methodist and later a member of a Baptist Church. The concept of 'Faith Missions' can be traced back through Hudson Taylor to the example of the early **Brethren** missionary, Anthony Norris Groves.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감리교도로서 자라났고 나중에는 침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Open Brethren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원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거쳐 **Brethren**의 초기 선교사였던 안쏘니 노리스 그로브스(Anthony Norris Groves)가 남긴 믿음의 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무디와 관련된 언급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영국에 있을 때 Brethren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그들과의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아래 글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Dwight_L._Moody)

It was while on a trip to England in Spring of 1872 that he[Moody] became well known as an evangelist. Some have claimed he was the greatest evangelist of the 19th century. He preached almost a hundred times and came into communion with the **Plymouth Brethren**. On several occasions he filled stadiums of 2,000 to 4,000 capacity. In the Botanic Gardens Palace, a meeting had between 15,000 to 30,000 people.

무디가 복음전도자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1872년 봄에 잉글랜드에 가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들은 무디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전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잉글랜드에서 거의 백번 정도 설교했고 Brethren과의 친교를 시작했다. 몇 번의 경우에는 2,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동장을 채우기도 했다. Botanic Gardens Palace에서 모였을 때는 15,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 조지 뮐러와 관련된 언급

영국의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한 수많은 기도응답의 간증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조지 뮐러는 아래에서 보듯이 Open Brethren의 창설자였습니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M%C3%BCller)

George Muller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Open Brethren** movement, a sub branch of the **Plymouth Brethren**.

조지 뮐러는 Plymouth Brethren의 한 부류인 Open Brethren 운동의 창설자였다.

○ 채프만과 관련된 언급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었고 Open Brethren의 주요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채프만에 대해 스펀전은 아래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Robert_Chapman_\(Plymouth_Brethren\)](http://en.wikipedia.org/wiki/Robert_Chapman_(Plymouth_Brethren)))

Charles Spurgeon called Chapman "the saintliest man I ever knew". Chapman became so well known that a letter from abroad addressed only to "R.C. Chapman, University of Love, England" was correctly delivered to him.

찰스 스펔전은 채프만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도다운 사람”이라고 불렀다. 채프만은 영국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한 편지의 주소가 단지 “잉글랜드, 사랑의 대학, 채프만”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도 정확하게 그에게 배달되었다.

○ Brethren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 Brethren에 대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소개

<http://www.brethrenonline.org/faqs/Brethren.htm>

- Brethren에 대한 다양한 자료모음

<http://www.plymouthbrethre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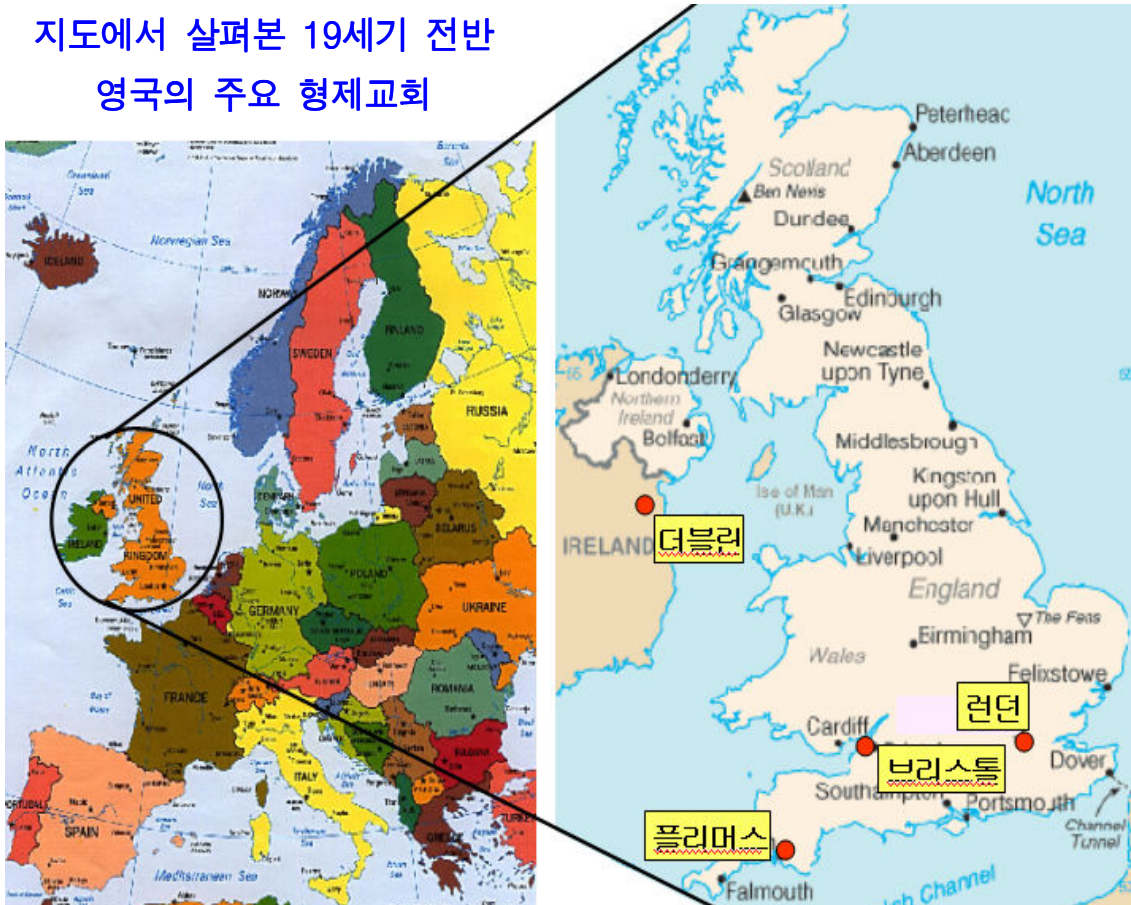
<http://www.brethrenonline.org>

○ Brethren이 발행하는 대표적 잡지

Brethren이 발행하는 잡지로는 영국에서 읽히는 Assembly Testimony (www.assemblytestimony.org)와 Believer's Magazine, Precious Seed (www.preciousseed.org)가 있고, 북미에서는 Truth and Tidings (www.truthandtidings.com), Uplook(www.uplook.org)이 발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교회개혁 및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Partnership Perspective(www.partnershipuk.org)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제2부 Brethren의 역사와 교리, 실행

지도에서 살펴본 19세기 전반
영국의 주요 형제교회



1. 영국에서 형제들의 초기발전과정

19세기가 시작될 무렵 유럽대륙은 18세기 후반의 프랑스혁명의 결과 왕정이 무너지고 난 후 혁명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후에 침략에 대한 불안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6세기에 마틴 루터(Martin Luther) 등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셨던 것처럼,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국교회의 전반적인 형식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복음을 바탕으로 성경적 교회와 예배에 관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형제들로 불리기를 원했음에도 나중에 외부사람들에 의하여 “플리머스 브레드린”(Plymouth Brethren, 이 말은 원래 단순히 '플리머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란 뜻으로서 이 이름은 플리머스 지역에 생긴 형제들의 교회가 형제들의 대표적 교회의 하나로 성장함에 따라 주위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처음에 언급할 인물은 바로 **에드워드 크로닌**(Edward Cronin)입니다. 그는 1801년에 영국의 코크(Cork)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톨릭 교도였고 어머니는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도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치과의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가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을 방문했을 때 카톨릭으로부터 복음을 찾아 나온 여러 복음주의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개신교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파적 분열상에 대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더블린에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느 특정교파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안고 쿠퍼(W. Cooper)라는 사람이 성직자로 있는 더블린의 요크 가(York Street)에 있는 독립교회(Independent Chapel)에 다니기 시작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이러한 분파적인 장벽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계속 연구함에 따라 인간들이 만든 교파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일인목회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며 주일날 오전이면 나가던 집회에 나가지 않고 나무 아래 같은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그 교회의 교인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데 반대했던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라는 집사도 결국 그 이름이 명단에서 함께 삭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1825년 에드워드 윌슨의 집에서 따로 모여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형제교회¹⁾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원리를 따르려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분파적인 명칭을 거부하고 스스로에 대해 단지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만 부르지만, 외부 사람들에 의해 Plymouth Brethren 또는 형제교회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형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림 1 에드워드 크로닌

에드워드 월슨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크로닌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났던 그의 사촌인 드러리(Drury)라는 여자와 팀스(Timms)라는 남자가 만찬을 나누는 모임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월슨이 영국으로 떠나자 크로닌은 이들과 함께 로워 펌브로크 가(Lower Pembroke Stree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찬을 나누는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모임은 향후 2년 동안 점점 숫자가 불어나게 되고 프랜시스 허친슨(Francis Hutchinson)이 여기에 더해지면서는 피츠윌리엄 스퀘어(Fitzwilliam Square) 9번지에 있는 그의 커다란 방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존 베시 파넬(John Vesey Parnel, 나중에 second Lord Congleton이 됨)이 이 무리와 함께 하게 되고, 그의 제안에 의해 온지어 가(Aungier Street)에 있는 큰 방을 임대하여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여태까지 누군가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라면 이때부터는 공적인 임대건물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크로닌의 말에 따르면 이 임대건물에 주일 저녁이면 주의 상을 놓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구를 밖으로 옮기던 때 자신이 느꼈던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2 더블린의 최초 교회장소(×한 곳)와 두 번째 교회장소

그들이 초기에 가졌던 교리는 다음과 같은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성경 말씀을 비취볼 때 성직자제도는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일인목회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일원이라 믿었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올 때 나아오는 사람들의 교파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다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셨음을 믿었습니다. 헨리 그로브스(Henry Groves)는 이러한 원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면 누구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열었으며, 성령에 의하여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자유도 함께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림 3 벨렛(J.G.Bellet)

1827년에는 이 무리에 **존 기포드 벨렛**(John Gifford Bellet)과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벨렛은 1795년에 더블린에서 태어나 10대에 회심을 경험한 후 1822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형제들을 알게 된 후에는 성경적 기반위에 단순히 모이는 그들의 교회에 함께 하게 되고 교회 초기 형제중의 하나인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Anthony Norris Groves)와 가졌던 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때 잉글랜드에 살았던 그로브스는 원래 치과의사를 하다가 이후 교회선교협회(Church Missionary Society)를 통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던 중 성직안수를 받아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말에 국교회 성직자로 안수받기 위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Trinity College)에서 신학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치러 자주 더블린에 오게 되었는데 점점 다른 초기형제들과 비슷한 원리들을 성

경을 통해 깨달아가던 중에, 더블린에서 이 형제들을 알게 되면서 더블린에 올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의한 안수를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이며,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으면 되는 것임을 깨닫고 국교회 성직자로 안수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에 그는 벨렛에게 자신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자유롭게 떡을 떼 수가 있으며, 사도들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828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벨렛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 인간이 세운 성직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단순히 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벨렛은 이 형제들의 길이 성경적인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동안 이 형제들과 교제를 계속하고 차후에 닥치게 되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경교사의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림 4 다비(J.N.Darby)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무렵 존 넬슨 다비가 이 교회에 함께 하게 되는데 그는 1800년에 아일랜드의 킹스 카운티(King's County) 지방에 있는 리프 캐슬(Leap Castle)이란 곳에서 그의 아버지 존 다비(John Darby)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스쿨(Westminster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를 다니게 되는데, 1819년에는 고전에 대한 최우수상 수상자(Classical Gold Medalist)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벨렛의 경우처럼 변호사가 되었지만 결국 이 직업을 그만두고 위클로우(Wicklow)라는 곳에서 매기(Magee)라는 더블린의 대주교에 의해 국교회 성직자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비는 이 때만 해도 극단적인 형태의 고교회(High Church)와, 카톨릭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보이는

국교회내의 한 부류)주의자였습니다. 이 때 그를 안수한 대주교 매기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비는 이에 결국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계속 연구함에 따라 국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 힘들어하던 중에, 당시 더블린의 에드워드 크로닌과 만나고 있던 벨렛의 권유에 의해 파워스코트(Powerscourt)여사가 자신의 저택에서 열던 성경의 예언에 관한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거기 참석했던 그로브스, 파넬 등을 만나게 되며 처음에는 가끔씩 교제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 교회가 성경적임을 확신하고 1827년 국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교회에 전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는 나중에 이 형제들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는 학문적 천재성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겸비한 인물로 초기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나중의 사역을 통해 오늘날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의 교리적 기초를 제공하여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교리에 큰 영향을 미친 세대주의 체계의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일랜드에서 서로 형제사이인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과 프랜시스 윌리엄 뉴먼(Francis William Newman)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권유로 잉글랜드의 옥스포드(Oxford)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벤자민 윌스 뉴턴(Benjamin Wills Newton)을 만나게 되고 뉴턴의 영향아래 있던 위그람(G. V. Wigram), 랜슬렛 브렌턴(Lancelot Brenton), 글래드스톤(W. E. Gladstone) 등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플리머스(Plymouth) 출신의 뉴턴의 권유에 의해 다비는 다시 플리머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1832년경 잉글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이 형제들의 교회가 이 지역에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는 제임스 해리스(James L. Harris)가 함께 하게 되고, 교회형제들의 글을 담은 "Christian Witness(그리스도인의 간증)"라는 잡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비의 글이 여러 차례 실리게 되었습니다. 1836년에는 트레겔레스(S. P. Tregelles)가 이 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플리머스 교회는 1,200명에 이르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스터플(Barnstaple)의 로버트 채프만(Robert Chapman)과 브리스톨(Bristol)의 헨리 크레익(Henry Craik)과 조지 뮐러(George Muller)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비의 일생동안 그와 연관되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37년에 다비는 스위스에 있는 감리교도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여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1840년경에는 그 열매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다수의 교회가 형성되었으며 제네바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의 희망에 관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사역 후에 그는 1853년부터는 독일에 있는 침례교도 사이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뒤셀도르프(Dusseldorf)와 엘버펠트(Elberfeld) 지역 등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이 형제들을 위하여 "엘버펠트 성경(Elberfeld Bible)"을 편찬하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있었던 복음주의자들의 연합교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만났던 톨릭(Tholuck) 박사에게 은사에 관한 그의 견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포 성경(Pau Bible)"을 편찬하였고, 그가 편찬한 영어판 성경은 개정을 거쳐 그의 사후 1890년이 되어 완전한 형태로 출판되었습니다. 1859년부터는 그는 캐나다와 미국, 인도서부,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사역했습니다.

50년이 넘는 그의 사역기간동안 그는 성경강해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The Synopsis of the Books of the Bible(성경개요)"은 그의 대표적 저작의 하나로 매우 유명합니다. 다비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인간의 역사를 따로 구분되는 여러 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르게 다뤄가시는데 인간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늘 실패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교회시대 역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으며 이 실패 역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교회의 황폐함을 바라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황폐한 교회조직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완전히 구분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며,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후에 펼쳐지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환란이 천년왕국 이전에 펼쳐지지만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흔히 세대주의로 불리는 체계를 현대적인 형태로 최초로 체계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대속적인 죽음의 효력 그리고 그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쳤으며 이러한 그의 복음적인 가르침은 그의 종말론과 더불어 근본주의운동(Fundamentalism :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당시 팽배하던 자유주의 신학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근본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수의 찬송가를 지었고 그가 지은 시집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생을 보내고 1882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간단하게 살펴본 다비의 일생입니다.

1828년 다비는 "The Nature and Unity of the Church of Christ(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 하나됨)"이라는 팜플렛을 펴냈는데, 이것은 이 형제들의 최초의 소책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기를 자신은 새로운 교파를 만든다거나 교회들의 연합체를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자에서 "기독교도라고 말하는 교회들의 조직적인 연합체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는 교회의 생명과 상실된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생명 안에서 연합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 위에서 움직여야 하며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의 하나됨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의 완전한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이란 말씀에서 그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축복의 이름인 것이다. 하나됨은 분명 교회의 영광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단순한 연합에 불과하며 교회의 본질과 소망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하나됨이며 영적인 사람들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림 5 그로브스(A.N.Groves)

더블린에서 이렇게 단순한 성경적 원리로 모이던 형제들 가운데는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Anthony Norris Groves)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다비가 그의 책자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하나됨에 대한 강하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Open 형제들의 선구적 선교사로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1795년 햄프셔(Hampshire)의 뉴턴(Newton)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Miss Paget의 영향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그는 나중에 플리머스 지역에서 치과의사가 되는데 나중에 엑시터(Exeter)지역으로

웁기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세상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품게 되며 그의 아내가 이러한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확신이 아직 없자 확신이 생길 때까지 13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825년에는 "Christian Devotedness(그리스도인의 헌신)"라는 책자를 쓰게 되는데 그는 이 책자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에 헌신하려는 소망을 보여주는데 이 책자에서 우리는 특히 물질적인 소유와 연관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성공적인 치과의사로서의 수입의 대부분을 주의 일에 바치는 그의 헌신을 볼 수 있다. 이 책자는 바로 영국교회 초기형제들의 하나이자 나중에 오직 기도로 공급받아 대규모 고아원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해진 조지 윌러를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교회선교협회(Church Missionary Society)를 통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만 성직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국교회 성직자로 안수를 받기 위해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학기중간에 있는 시험을 치르러 더블린에 오다가 더블린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성직안수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던 가운데 그는 학기중간에 있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더블린으로 가기 위해 마련해 놓은 400파운드의 돈이 어느 주일날 저녁 도둑맞음으로 말미암아 성직안수를 위한 시험을 위해 더블린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직안수가 필요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성직안수를 받지 않은 채 ‘교회선교협회’를 통해 선교사로 나가려고 요청하였지만 성직안수를 받지 않으면 만찬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들의 말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던 가운데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직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근거 없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역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 주어지는 성직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생각임을 확신하면서, 1829년 그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다른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일념으로 그의 친구가 빌려준 배를 타고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부르크(St. Petersburg)를 거쳐 목적지인 바그다드(Bagdad)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이 여행을 마치고 바그다드에 도착하

자 돈은 바닥났지만 바그다드에서의 사역기간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광신적인 이슬람교도였고 살인과 강도가 만연했습니다. 바그다드에 머물기 시작한 두 번째 해에는 전염병이 돌아 수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설상가상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대부분이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와 기근, 폭력으로 말미암아 불과 85,000 명의 인구중에 65,0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들은 1832년 크로닌과 콩글턴 경(Lord Congleton) 그리고 프랜시스 뉴먼의 방문과 도움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전하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만연하던 치명적인 전염병에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했던 바그다드에서의 그의 사역은 겉으로 보아서는 소수의 회심자를 얻는데 그쳤지만 그의 믿음과 용기는 그의 뒤를 따르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고 오늘날 오직 주님을 의지한 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잉글랜드로 돌아와 잠깐 머물다가 나중에 다시 인도의 마드라스(Madras)로 가서 치과의사를 하며 바울처럼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의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 영국에서 형제교회의 확장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비가 1828년 작성한 "The Nature and Unity of the Church of Christ(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 하나됨)"이란 책자는 형제들이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원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블린에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비슷한 원리를 실행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826년 레오나르드 스트롱(Leonard Strong)이라는 영국국교회 성직자가 영국령 가이아나(Guiana)에 있는 한 교구에 가게 되었는데 노예들을 상대로 한 그의 사역은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노예주인들의 살해위협으로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피터스 홀(Peters Hall)과 조지 타운(George Town)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는 중에 예배에 있어 일반성도들을 동일한 입장에서 대하기 위해 성직자로서 받았던 800파운드에 이르는 고정적 수입과 교회관사를 포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교회의 시초가 더블린인지 플리머스인지 아니면 죠지 타운인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러한 움직임은 동시다발적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어쨌든 더블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데 성직자제도의 형식성을 벗어남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가 은사를 발휘하는 게 가능해지고, 교과적 장벽을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가운데 영접함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사랑가운데서의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성직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들의 기존의 교과적인 장벽을 넘어 회중전체와 함께 더블린에서와 같은 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Papers on Church History(교회사)"를 쓴 앤드류 밀러(Andrew Miller)는 이러한 초기시대를 가리키며 "형제들과 함께 하기 시작한 그들은 그들이 밝게 되는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연구에 자신들을 헌신했고 이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달콤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신선함의 시대에 성령의 축복이 분명히 함께 하심은 영국 뿐 아니라 유럽대륙과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830년 무렵까지 아일랜드에서는 대여섯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잉글랜드에서는 런던과 플리머스 그리고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갔다.



그림6 위그람(G.V.Wigram)

런던에서의 첫번째 형제교회의 시작은 **죠티 비세시무스 위그람**(George Vicesimus Wigram)과 관련되어 설명되는데 그는 1805년 런던의 상인이었던 죠티 위그람(George Wigram)의 스무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회심을 경험한 그는 성직안수를 위해 옥스포드(Oxford)에 있는 퀸스 컬리지(Queen's College)에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그는 나중에 형제들의 지도자중

의 하나가 되는 벤자민 월스 뉴턴과 제임스 해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후 50년 가까이 다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다비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어 다비와 관련한 모든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사재를 털어 "Englishman's Greek and Hebrew Concordances (영어사용자를 위한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전)"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7 플리머스 교회의 최초 예배당

플리머스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놀라울 만큼 빨랐고 이 교회의 형제들은 주위 사회에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1830년경 시작된 이 교회는 1840년경 그 숫자가 800명에 이르렀고 5년 후에는 12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마을에도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플리머스 브레드린(Plymouth Brethren)으로 불렀는데 이 말은 단순히 플리머스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형제들의 교회가 외부에 플리머스 브레드린(Plymouth Brethren)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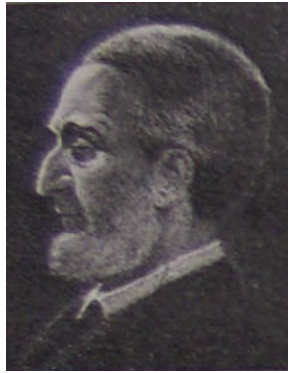


그림8 뉴턴(B.W.Newton)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뛰어난 성경교사와 복음전도자가 많았는데, 이러한 형제들 중에 앞에서 말한 플리머스 출신의 **벤자민 월스 뉴턴**이 있었습니다. 1807년에 태어난 그는 탁월한 성경교사로 학문적 재능과 인격적 매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초기형제들처럼 국교회의 성직자로 안수를 받고자 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3살이 못되는 나이인 1830년에 그는 옥스포드를 방문한 다비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교회질서와 예배에 관한 다비의 견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그는 1847년 형제들에게서 물러날 때까지 옥스포드에서 머물렀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플리머스에 머물며 형제들 사이에서 활동적인 사역을 벌였습니다. 1832년에 플리머스 교회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였던 제임스 해리스(James L. Harris)를 받아들였는데 그는 뛰어난 목회자이자 성경교사에다가 많은 글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Christian Witness(그리스도인의 간증)”라는 잡지를 편집해서 형제들과 관련한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플리머스 교회에는 열렬한 성경교사이자 복음전도자인 퍼시 프랜시스 홀(Percy Francis Hall)이 있었습니다. 1836년에는 뉴턴과 매형매제사이인 사무엘 트레겔레스(Samuel P. Tregelles)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는 뛰어난 성경학자로 유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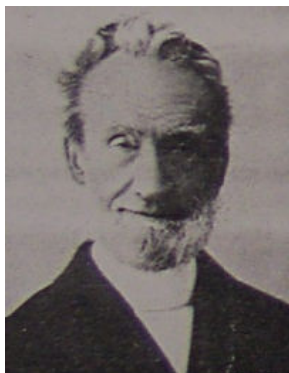


그림9 조지 뮐러(George Muller)

브리스톨(Bristol)에서는 조지 뮐러(George Muller)와 헨리 크레이크(Henry Craik)이 비슷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지 뮐러**는 1805년 프러시아(Prussia)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는 1825년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인 문제로 군복무가 거부된 후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교사로 일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러 1829년 런던에 왔다가 앞에서 언급한 그로브스(A. N. Groves)의 "Christian Devotedness(그리스도인의 헌신)"라는 책자를 읽게 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테인머스(Teignmouth)에 있는 교회에 목사로 가게 되고, 1830년 10월에는 그로브스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던 중 오직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하며 믿는 자들은 매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해야 하고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역동안 그는 목사로서 고정된 수입을 포기하였습니다.

헨리 크레이크는 뮐러가 태어난 같은 해인 1805년에 이스트 로시안(East Lothian)에 있는 프레스턴패스(Prestonpas)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성 앤드류 대학교(St. Andrews University)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난 후, 1826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그의 재능과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바치게 되었습니다. 1826년부터 1828년까지 그는 엑시터에 있는 그로브스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였고 그로브스의 인격과 가르침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주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의 교훈과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교제의 가르침을 주신 곳은 성 앤드류(St. Andrews)도 아니었고 플리머스도 아니라 바로 엑시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뮐러가 사역하던 테인머스에서도 가정교사를 하였고 여기서 뮐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31년에는 뮐러가 사역하던 테인머스 근처의 샬던(Shaldon)이란 곳에 있는 침례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근처의 뮐러와 합치게 되고, 이 둘은 1832년 8월 13일부터 브리스톨에 있는 기드온 채플(Gideon Chapel)에서 오직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빛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7명이란 소수의 숫자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베데스다 채플(Bethesda Chapel) 건물도 임대해서 교회를 갖기 시작했고 주님의 축복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크레이크(Henry Craik)은 여기서 뛰어난 설교자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10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

그들은 처음에는 믿은 상태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영접했지만(이 말은 다른 교파의 관행인 유아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전에 믿은 상태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윌러와 크레이크가 예전에 속해 있던 침례교회의 당시 관행은 믿은 상태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받지 않았습니다). 반스터플(Barnstaple) 교회의 로버트 채프만(Robert Chapman)의 조언과 함께 많은 기도와 성경연구의 결과 나중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은혜나 지식의 정도와 무관하게 전부 영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윌러와 크레이크 사이의 이러한 깊은 동역의 관계는 1866년 크레이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고 윌러는 18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형제들과의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의 일생동안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필요를 공급받고 브리스톨에 다섯 개의 고아원을 운영해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의 고아원을 거쳐간 놀라운 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슐리 다운스(Ashley Downs)에 있는 그의 고아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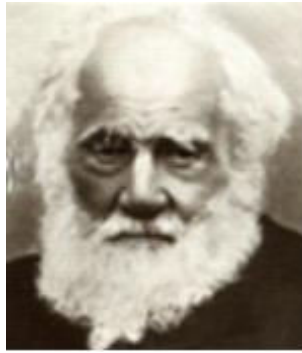


그림11 채프만(R.C.Chapman)

윌러와 크레이키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브리스톨에 교회를 시작했던 같은 해인 1832년에 성령에 의해 같은 길로 인도함을 받은 로버트 채프만(Robert Cleaver Chapman)은 반스터플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803년에 태어나 20세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 1902년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평생 동안 전심을 다해 계속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일생은 경건과 은혜로운 겸손함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은사 있는 성경교사이자 신실한 목회자였으며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열정적인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미 등지에 성경적인 교회원리를 따르는 많은 수의 교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로브스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바그다드에서 3년의 선교사역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결실을 맺었으며 그의 본을 따르는 수많은 형제자매가 복음을 들고 외국에 나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38년에 다비는 부흥의 조짐이 보이던 불어권 스위스에 있는 보드(Vaud)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제에 아무런 교파적 장벽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교파가 어떠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어습득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 불어와 독어를 비롯한 몇 가지 언어로 자유롭게 설교하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높은 교육수준과 개인적인 경건을 가진 많은 수의 성직자가 성경적인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스위스로부터 프랑스 남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지역에

형성된 여러 교회들을 계속 돌아다니며 가르침과 설교와 보살피는 일에 전념했고 이러한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1845년 예수회(Jesuit) 일파에 의해 보드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다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위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843년에는 뮐러가 브리스톨에 있는 형제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원리들을 잘 알고 싶다는 독일의 스투트가르트(Stuttgart)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 초청에 응하여 그곳에 가서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며 설교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뮐러를 환영하였지만 주로 침례교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들은 뮐러의 사역 자체는 환영했지만 그가 과거 국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린 시절 유아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떡을 떼고 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떡을 떼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비국교회파 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던 강한 교파적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뮐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믿는 자로 침례를 받는 일과 국교회와의 분리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결국 거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이며 진리는 우리 가운데서만 발견된다. 다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낮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일했고 스위스에서의 다비의 경우와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사역은 큰 열매를 맺어 많은 수의 교회가 독일에 형성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말해 성경적으로 받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영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 해외선교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다비를 비롯하여 **윌리엄 켈리**(다비의 글을 모아 펴냈으며, 다수의 성경강해로 유명함), **매킨토시**(C. H. Mackintosh : '모세오경 강해(생명의 말씀사 발행)'로 유명함), **조지 커팅**(George Cutting :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전도출판사 발행)'이라는 소책자로 유명함) 등과 같은 뛰어난 성경교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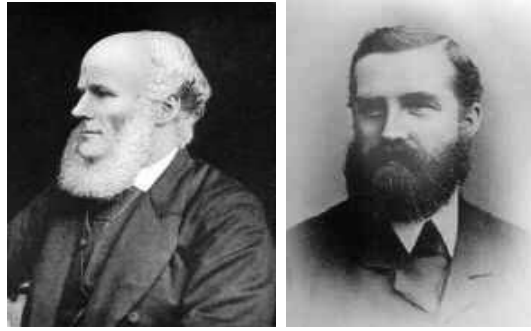


그림12 매킨토시와 조지 커팅

이뿐 아니라 형제들은 **조지 윌러나 채프만**을 비롯한 뛰어난 복음전도자와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선교사를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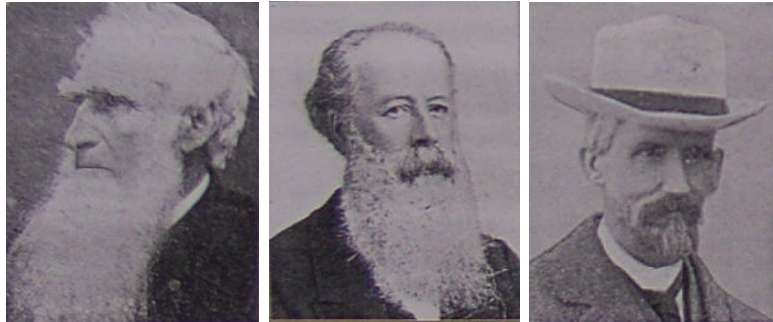


그림13 영국의 초기 선교사들(스트롱, 펜, 아르넷)

3. 형제들의 실행적 측면

형제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선교사 형제자매들의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나라로 퍼져갔고(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형제들 출신의 선교사 형제들의 수고로 인해 현재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지역교회들이 활발하게 개척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지역교회들이 시작되었고 각자의 지역적 상황 안에서 교회의 원리들이 적용되면서 살아있는 복음전도의 노력과 함께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자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사이의 유대와 교제의 끈은 매우 강했고 특히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개척된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긴밀성과 외양에서의 상호유사성은 성경에 기반하여 발견한 원리를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외부로부터의 반대와 몰이해에

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로 연합된 결과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처리에 있어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지역교회가 믿는 자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형태라는 인식이 전통적인 교회들 사이에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성경교사와 복음전도자, 설교자들을 세우는 일이 실천되었고 이들은 지역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형제들은 여러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사역했고 이것이 각 지역교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분별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교회잡지와 출판사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자주 "교회진리"에 관한 글들을 실었고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잡지로는 영국에서 읽히는 Assembly Testimony(www.assemblytestimony.org)와 Believer's Magazine, Precious Seed(www.preciousseed.org)가 있고, 북미에서는 Truth and Tidings(www.truthandtidings.com), Uplook(www.uplook.org)이 발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교회개혁 및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Partnership Perspective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종종 성경예언에 관하여(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큰 관심을 공유했고 그들의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인식하에 주님의 갑작스런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주의 일에 충실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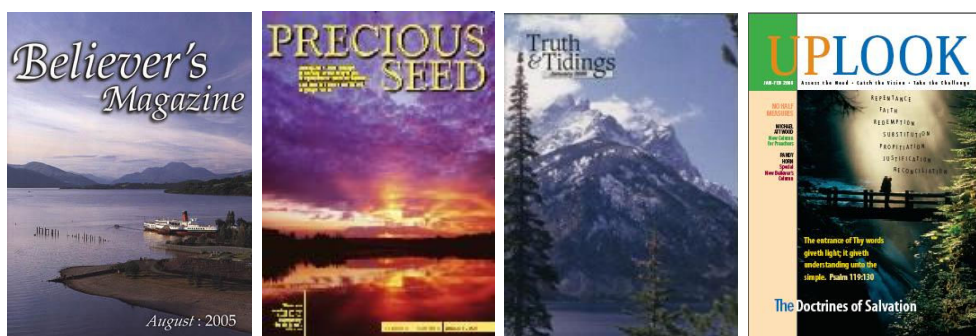


그림14 형제들의 잡지들

영국 내에서는 "Stewardship Services(재정적인 문제의 운영을 위한 기관)" 나 "Echoes of Service(해외선교사 후원기관)" 그리고 "Counties(자국내 전도 후원을 위한 기관)"같은 기구들이 생겨나 많은 교회들이 사역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전국규모의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들이 주최하는 집회나 수양회에도 참석해서 복음전도의 노력과 선교사역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의 형제자매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떠나온 교회에서 가져온 천거서를 보여주었고 이 형제자매는 고향에서와 같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림15 형제교회 예배당의 외부와 내부(1)

이러한 형제들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일들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집회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주일에는 오전과 저녁에 걸쳐 만찬예배와 복음집회(또는 말씀집회)가 각각 열리고 주중에는 기도집회나 성경공부(Bible Reading) 또는 말씀집회(Ministry Meeting)들이 열리며 성경공부시간에는 모든 형제들이 참여해서 기여하도록 권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집회나 말씀집회에서는 교회내의 형제들이나 또는 외부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찬예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낭독, 감사나 찬양기도, 찬송 등이 이루어진 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간단한 광고사항 공지로 예배가 마치는 경우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 만찬 후에 감동을 받은 형제에 의해 말씀교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의한 자발적인 기도가 권장되어, 정해놓고 읽는 기도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림16 형제교회 예배당의 외부모습(2)



그림17 형제교회의 주일집회모습



그림18 복음전도활동(야외전도, 텐트 집회)

각 지역교회는 신약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따라 복수의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임사역자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치리에 있어서 이들은 다수결투표에 의한 민주적 방법을 거부하며, 국교회 같은 계층적 교회구조를 거부합니다. 새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장로들에 의해 세워지며, 장로들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합니다. 어떤 교회는 집사가 세워져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의 개방성은 형제들이 모인 교회의 대표적 특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의 개방성을 인정해서 은사 있는 형제라면 자유롭게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도 은사 없는 형제의 무분별한 사역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계획과 틀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리 성경의 일정한 부분이나 주제를 정해 놓고 모든 형제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형태의 성경공부(Bible Reading)가 많은 교회에 의해 실행되어 왔습니다. 기도집회에서도 모든 형제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태의 개방적 사역은 만찬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찬예배에서는 그야말로 형제들이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사에 참여할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림19 주일의 집회들(만찬예배, 주일학교)

영국의 형제들은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교회에서는 완전침수에 의한 세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침례는 내적인 믿음의 외적표현으로서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연합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주의 만찬과 함께 매우 중요시되었습니다.

4. 형제들의 교리적 측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실행적 측면과 함께 여기서는 형제들의 여러 가지 교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분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상의 권위가 주어졌고 형제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은 교회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간직하는 것은 언제나 형제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형제교회의 교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복음에 인간적인 요소를 더한다고 하여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형제들의 교리는 근본주의운동(20세기 전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당시 교계에 팽배하던 자유주의신학에 대항하여 성경의 근본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복음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 자유주의신학이 만연할 때도 형제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성향을 고집해 왔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형제들은 개신교 교단의 복음주의자들과 상이한 면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신이 지상의 보이는 교회이며 세례에 의해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원은 오직 자신의 교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각 지역교회는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형제들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와 많은 면에서 맥을 같이 하여 개신교 여러 교단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방식에는 신약 성경에서 규정된 형태가 있다고 보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형제들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틀어 "교회진리"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의 교리 가운데 주목을 끄는 대목은 흔히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체계인데, 이것은 다비(J. N. Darby)의 견해가 많은 형제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각 세대마다 다르게 다루셨는데, 각 세대마다 인간은 실패하게 되며 오늘의 교회세대 역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세대 이후 펼쳐지는 천년왕국 이전에 지구상에 대환란이 전개되는데, 이 대환란 기간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대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대환란 이후에 지구상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천년왕국은 사단의 결박과 함께 시작되고 천년왕국의 말기에 사단이 놓임 받아 반역을 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며 백보좌 심판 이후 믿는 자와 불신자는 영원한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성경예언에 대한 연구는 형제들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로 외부에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림20 바인(W.E.Vine)과 브루스(F.F.Bruce)

일반적으로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성경구절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형제들 안에는 뛰어난 성경학자가 다수 존재해 왔는데, 초기에는 다비(J. N. Darby)를 비롯하여 위그람(G. V. Wigram), 트레겔레스(S. Tregelles), 윌리엄 켈리(W. Kelly) 등이 있고 최근에는 20세기 중반의 **바인**(W. E. Vine, ‘바인 성경사전’으로 유명함), 20세기 후반의 **브루스**(F. F. Bruce,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신학교수로서 다수의 저작이 국내에 소개되었음)와 **라우든**(H. H. Rowdon) 등이 있습니다.